

# 현안과 과제

오바마 재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

## 1. 오바마 재선 성공

○ (오바마 재선) 버락 오바마가 11월 7일 오후 8시(한국 시각) 현재 선거인단의 과반수(270명)인 303명을 확보하여 재선이 확실시 됨

- **경합주에서 승리** : 개표가 거의 마무리된 대부분의 경합주에서 오바마가 과반수의 지지 선거인단을 확보
- 오바마의 승리주는 20개, 롬니의 승리주는 24개이며 나머지 7개 주는 박빙이지만 오바마의 승리로 기울고 있음
- 전체 투표자중 50.1%가 오바마를 지지했으며 롬니를 지지한 투표자는 48.4%
- 오하이오 주의 승리로 오바마가 획득한 선거인단은 과반수를 넘긴 것으로 분석

○ (향후 일정)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출과 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21일 대통령 취임

- **2012년 12월 17일**: 선거인단의 대통령 및 부통령 선출
- **2013년 1월 중** :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12월 17일 선거 결과를 확인
- **2013년 1월 21일** : 미국 대통령 취임
  - 전통적으로 1월 20일이 취임일이지만, 내년의 경우 일요일을 피해 월요일에 취임

### < 경합주 득표 현황 >

|         |      |      | (%)  |      |      |
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경합주     | 오바마  | 롬니   | 경합주  | 오바마  | 롬니   |
| 노스캐롤라이나 | 46.2 | 49.2 | 뉴햄프셔 | 49.9 | 47.9 |
| 오하이오    | 50.0 | 47.1 | 미시건  | 49.5 | 45.5 |
| 플로리다    | 48.2 | 49.7 | 위스컨신 | 50.4 | 46.2 |
| 버지니아    | 48.0 | 47.7 | 아이오와 | 48.7 | 46.3 |
| 펜실베이니아  | 49.4 | 45.6 | 콜로라도 | 48.8 | 47.3 |
|         |      |      | 네바다  | 50.2 | 47.4 |

자료: CNN

- 주 1) 경합주는 정치전문 매체 'Real Clear Politic' 선정에 따름
- 2) 2012년 11월 7일 오후 8시 현재(한국시각)

## 2. 오바마 재선의 의미와 주요 정책 방향

### 1) 오바마 재선의 의미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화된 미국의 세계 정치·경제적 리더십이 회복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
  - 세계 정치 : 강력한 미국 건설과 세계와의 화해를 통한 미국의 리더십 확보
  - 세계 경제 : '희망과 변화'를 통한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의 새로운 기회
  - 한미 관계 : 아시아-태평양 지역을 외교의 중심축(Pivot to Asia)으로 삼는 외교 전략과 기존의 우호적 한미 관계 강화

### 2) 주요 정책 방향

- (경제 정책)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오바마 1기 행정부의 경제 활성화 기조가 2기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전망
  - 재정정책 : 큰 정부를 지향하며 부자 증세를 통해 세수 확보
    -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,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 투자 확대, 감세안 연장을 통한 민간소비 촉진에 나서면서 재정절벽 우려 완화
  - 통화정책 : 고용이 개선될 때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
  - 통상정책 :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증대와 불공정 무역 관행 근절
  - 산업 및 에너지 정책 : 제조업 부활과 청정에너지 개발
    - 제조업 르네상스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, 에너지 자립도 제고, 태양광·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지속

1) Thomas L. Friedman. (2012.11.7). "Hope and Change: Part Two". New York Times

<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정책 특징 >

| 분야     | 주요 정책   | 세부 내용   |
|--------|---|---|
| 재정     | -정부지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<br>-법인세율 인하<br>-고소득자 세금 인상        | · 장기실업자 2백만 명 훈련, 공공일자리 프로그램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2,200억 달러 투입<br>· 법인세율을 기존 35%에서 28%로 인하<br>·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가구의 연방소득세율을 최소 30%로 상향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통화     | -달러화 약세 및 저금리 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벤 버냉키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의 양적완화 지지   |
| 통상     | -자유 무역 지지와 수출 증대<br>-불공정 무역 관행 근절                   | · FTA 확대를 통한 신규 시장 개척으로 2014년까지 수출을 두 배까지 확대<br>· '무역단속부(Trade Investigation Unit)' 신설  |
| 산업·에너지 | -제조업 르네상스<br>-소상공인 지원<br>-에너지 자립도 제고<br>-신재생 에너지 개발 | · 국내 제조업체에 대해 9%의 세금 경감률을 확대<br>· '신고용(New Hire) 세금 공제'를 입법하여 소상공인에 대해 소득세 10% 공제<br>· 2020년까지 원유 수입 절반으로 축소하고 셰일가스 개발 관련 일자리 6백만 개 창출<br>·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 기업에 30% 세금 경감 |

출처 : 오바마 선거 캠프 홈페이지(www.barackobama.com), National Journal(www.nationaljournal.com)

○ (외교 정책) 국제적인 협력의 강화와 淸아시아 중시 정책 추진

- 국제사회와의 협력 중시 :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과 관련해 중동 및 이슬람 국가들과 관계를 재설정하는 등 협력 기조 강화
- 아시아 중시 정책 : 전략적 중심이 중동에서 아시아로 이동 중이며, 특히 중국에 대해 적수이자 잠재적 동반자임을 강조
- 대북 정책 :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최우선으로 하며, 북핵 불용과 함께 우라늄 농축 및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에 보상 없음을 강조

<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특징 >

| 분야      | 주요 정책            | 세부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외교정책    | -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   | · 동맹국과의 협력<br>· 일방주의 지양            |
| 淸아시아 정책 | -전략적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 | · 중국/아시아 중시 정책 지속                  |
| 대북 정책   | -전략적 인내 지속       | · 한미동맹 강화 유지<br>· 분명한 원칙 하의 북한 비핵화 |

출처 : 오바마 선거 캠프 홈페이지(www.barackobama.com)

### 3. 한국에 미치는 파급 영향 및 대응 과제

○ (파급 영향) 오바마 당선은 한국 경제 회복 및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이거나, 금융시장 불안 및 통상마찰 심화 우려도 존재

- 성장 : 한국의 경제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
  - 재정지출 감축 폭이 줄어들면서 재정절벽 우려가 완화되고, 양적완화 조치로 주택시장이 회복되면서 미국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
  - 미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 및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감소로 한국의 대외 수출이 점차 개선될 전망
  -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로 원/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무역수지 흑자 폭이 감소할 우려 존재
  
- 금융 : 글로벌 유동성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가 우려
  -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 감소로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효과 존재
  - 하지만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 금융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되고, 향후 급격한 외화자금 유출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 증대
  - 원/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외환시장 불안정성 증가 우려
  
- 통상 : 대미 수출입 확대 속 통상마찰 증가
  - 오바마 2기 정부의 자유무역 중시 방침에 따라 한미 FTA가 강화되면서 대미 수출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
  - 다만 오바마 2기 정부는 對한국 무역적자를 이유로, 한국이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판단됨. 특히 미국 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농업 분야와 서비스업의 개방 압력이 거세질 전망
  - 또한 오바마 2기 정부가 무역단속부를 신설하여 자국 제품 보호 및 타국 제품 견제에 나서면서, 삼성전자-애플의 특허 소송이나 현대차의 연비 과장광고 제제와 같은 통상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

- 외교안보 : 기존의 굳건한 한미동맹과 아시아 중시 정책 유지
  - 기존의 한미 관계 유지 속에 한미동맹이 강화되고,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
  - 다만 미중 패권 경쟁은 차기정부의 미중 균형외교 정책 추진에 부담
- 남북관계 : 오바마 2기 정부가 한국 차기 정부의 대북 유연화 조치를 지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
  - 한국의 차기 정부가 대북 유연화 조치를 실시할 경우, 오바마 2기 정부는 한국의 대북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
  - 북핵 문제는 북한의 도발행위 중단을 전제로 한 6자 회담 혹은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한 과감한 접근 시도 예상

< 오바마 당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>

|      | 긍정적 영향   | 부정적 영향  | 종합 평가 |
|------|--|---|-------|
| 성장   | -재정절벽 우려 완화<br>-미국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지속<br>-세계 경제 불확실성 감소<br>-한미FTA 강화→수출입 증가 | -원/달러환율 하락→수출 감소  | +     |
| 금융   | -불확실성 감소→세계금융시장 안정   | -달러화 공급 증가로 급격한 자본 유출입 우려 증대<br>-원/달러환율 하락세 지속→외환시장 불안정성 증가 | -     |
| 통상   | -한미FTA 협력기조 강화   | -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 강화<br>-농업·서비스분야 개방 압력 확대                | -     |
| 외교안보 | -굳건한 한미동맹 유지<br>-아시아 중시정책→한국 역할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정부의 균형 외교 정책 추진에 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△     |
| 남북관계 | -한국의 유연한 대북정책 지지<br>-북핵 해결에 적극 노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북미 직접대화 시 남한 역할 축소 우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+     |

주 : 종합평가에서 +는 긍정적 영향을, -는 부정적 영향을, △는 중립적 영향을 뜻함

- (대응 과제) 대미 수출 증가, 북미관계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, 금융시장 불안, 통상마찰 심화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
  - 급격한 원/달러 환율 하락 및 변동성 확대를 방지하여 금융시장 안정화 유도
    - 정책 당국의 미세 조정을 통해 원/달러 환율 급락에 대한 불안 심리 해소
    -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,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거래세 도입 등을 검토
    - 한편 기업들은 원/달러 환율 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품질 및 브랜드 혁신을 통해 고품질 수출 경쟁력 확대
  - 점증하는 통상 마찰에 능동적으로 대응
    - 정부 차원에서 무역 분쟁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, 규제 예상 품목을 별도 관리
    - 기업 차원에서는 미국 국내의 규제 조치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, 통상 관련 인력 확충, 수출유관기관들과의 정보 공유 등의 대응 체계를 구축
  - 대외 수출 확대와 더불어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을 병행하여 경기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함
    -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, 수출 확대는 생산 및 고용,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존재
    - 대외 수출 확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주력
    - 또한 소비 활성화 대책 및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병행함으로써, 내·외수 동반 침체에서 내·외수 동반성장으로 전환하는 기회로 활용

경제연구본부 홍준표 연구위원 외 (02-2072-6214, jphong@hri.co.kr)